

청바지 착용감 개선을 위한 착용실태 조사

임 지 영 (동명정보대학교 디자인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김 현 옥* (동명정보대학교 디자인대학 패션디자인학과 학생)

이 선 담 (동명정보대학교 디자인대학 패션디자인학과 학생)

서 명 선 (동명정보대학교 디자인대학 패션디자인학과 학생)

과거에는 청바지가 작업복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성별, 연령, 계절, 직업 및 착용상황등과 관계없이 청바지가 널리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자아실현에 대한 가치를 표현하는 필수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밀위길이가 짧은 로 라이즈진 등 섹시함을 강조하는 청바지가 대중화되면서 기능적, 능률적 위생적인 의복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섹시함 추구, 브랜드 이미지 추구, 신체보안등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 밀위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현상을 소비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의복구성에 관련된 논문 중 패턴이나 구매행동에 대한 논문은 많으나 밀위에 관련된 논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각 연령별대 여성을 대상으로 청바지의 구매실태, 착용 실태 및 이에 따른 문제점과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함으로써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청바지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과 동시에 청바지 착용감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본 조사는 부산에 거주하는 10대~50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청바지 구입, 착용 습관 및 선호도, 밀위길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 청바지 착용 시 불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묻는 문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체형에 따른 청바지 구입 형태를 조사한 결과 일자형과 세미부츠컷, 부츠컷, 와일드 일자를 선호하였으며, 청바지를 구입하는 주된 이유는 유행이 변해서>윗옷의 색상과 용도에 맞는 청바지를 착용하기 위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바지 구입시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용도 및 디자인, 색상과 가격, 착용감, 브랜드 및 소재의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청바지 착용행태는 30대 이후의 연령층에서 사이즈가 큰 청바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청바지를 크게 입는 이유로 30대 이상의 여성은 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10대와 20대는 멋스럽게 입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다. 연령별 청바지 밀위길이가 짧아지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 섹시함, 날씬함, 멋스러움을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였으며 짧은 밀위길이는 기존의 청바지가 가지고 있던 편안함과는 먼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신체부위 만족도에 따른 밀위길이 선호도에서는 힙 둘레의 만족도에 따라 밀위길이 선호도는 유의적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바지 착용 시 불편한 부위는 연령대별로 가장 불편한 부위에 차이를 보였으며 구입 후 수선 부위로 역시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디자인을 변형하는 형태 또는 유행이나 디자인 보다는 편안함을 중요시하는 형태의 수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수선 부위가 다양해지며 디자인의 급속한 변화에 빨리 따라가지 못하고 이전의 유행이나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함을 알 수 있다. 청바지는 여가시간의 증가와 함께 전 연령대에서 선호하는 의복 아이템이므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착용감의 개선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